

2003년 1분기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경위 및 선정도서 목록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와 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김낙준)은 최근 교육, 문화, 언론 및 출판계 인사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3년도 제 1분기 청소년 도서를 선정했다. 종교·철학, 인문·사회, 문학·예술 등 총 5개 분야에서 23권이다. 청소년 도서선정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심어주고 교양증진과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보급하는 것. 선정도서는 1년 이내에 발행된 국내 도서를 대상으로 청소년 교양 및 정서 함양, 창의성 또는 논리성, 탐구심과 호기심 고취, 청소년 교육향상 등의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청소년 도서로 선정된 책은 3백 권을 구입, 각 도서관 등에 기증한다.



종교·철학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안영로 지음	쿰란출판사	334쪽	값 10,000원
《한국 철학 에세이》	김교빈 지음	동녘	296쪽	값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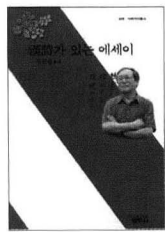
인문·사회

《문명과 수학》	리처드 만키에비에비츠 이상원 옮김	경문사	254쪽	값 23,000원
《사라져가는 이 땅의 서정과 풍경》	이용한 지음 심병우 외 사진	웅진닷컴	270쪽	값 14,000원
《일상의 발견》	김용석 지음	푸른숲	288쪽	값 9,500원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김창엽 외 지음	삼인	312쪽	값 11,000원
《나비아 청산가자》	진희숙 지음	청아출판사	246쪽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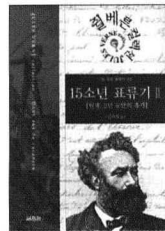
과학·기술

《재미있는 인류과학 이야기-물리편》	A. 서트클리프 지음 황국산 옮김	에문당	292쪽	값 8,000원
《해리포터의 과학》	로저 하이필드 지음 이한음 옮김	해냄출판사	398쪽	값 12,000원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미래 과학》	신만하 지음	한승	156쪽	값 15,000원



역사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이보아 지음	민연	288쪽	값 15,000원
------------------	--------	----	------	-----------



문학·예술

《한시가 있는 에세이》	정진권 지음	범우사	336쪽	값 6,000원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송혜진 지음	다른세상	328쪽	값 12,000원
《15소년 표류기 1,2》	질 베른 지음 레옹 브네 그림 조현실 옮김	웅진닷컴	각권 약 290쪽	값 각권 10,000원
《서양화 자신있게 보기 1,2》	이주현 지음	학교재	각권 255쪽	값 7,000원
《경험으로서의 예술》	존 듀이 지음 이재언 옮김	책세상	162쪽	값 4,900원
《회색곰 왁의 삶》	장석봉 지음	지호	302쪽	값 13,000원
《복학의》	박제가 안대회 엮음	돌베개	303쪽	값 12,000원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김소진 지음	문학동네	464쪽	값 9,500원
《네 정신에 새로운 창을 열어라》	김병종·최승호 외 지음	민음사	258쪽	값 30,000원
《꽃 그늘 아래》	이혜경 지음	창작과비평사	272쪽	값 8,000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그림 백가지》	박영대 지음	현암사	408쪽	값 25,000원



카메라와 글로 되살린 한국의 서정과 삶

《사라져가는 이 땅의 서정과 풍경》

안홍범, 심병우 사진/이용한 글/웅진닷컴/272쪽/값 14,000원



요즘 덜컥거리는 소달구지를 타본 젊은이들을 찾아보긴 힘들다. 그러나 경운기가 생기기 전까지 달구지는 농촌의 주요 운반수단이었다. 세월의 흔적을 거스르거나 문화나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소달구지가 등장하던 시절의 정감 있는 풍경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은 아쉽다. 《사라져가는 이 땅의 서정과 풍경》은 익숙한 우리네 풍경이 사라짐을 아쉬워하며 이 풍경들을 한 권의 책 속에 정성스럽게 담은 기록이다. 사진작가 안홍범, 심병우 씨와 시인 이용한 씨가 6년여 동안 다리품을 팔며 취재를 다녔다고 하니 그 노고 또한 대단하다. 그 열의를 반영하듯 책 속에는 가만히 앉아서 상상하기 힘든 우리땅의 풍경들이 살아 숨쉰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봄부터 두메산골 아이들이 얼음배를 타던 겨울까지 사계절로 변하는 이 땅의 모습이 현장감 있게 잘 포착되었다. 저자들은 시대의 변화와 발전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충고한다. 그렇게 떠난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많다. “요놈의 쪽정이, 껍데기 다 날아가라”며 키질을 하는 전라남도 신안의 황종금 할머니, 겨울 길목에서 만난 강원도 삼척 너와집 주인 이종옥 할아버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소리도 들린다. 초가 지붕, 추녀에 매달린 꽃감 타래, 아낙들의 수다 공간이 되었던 빨래터 등 세련된 현대식 조형물을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풍경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교실에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랬어”라며 설명하기보다는 이책 한 권을 들고 학생들과 전국일주를 떠나도 좋을 듯싶다. 추상적으로 전통의 향수를 전하기보다는 몸소 이 땅의 서정과 자연의 향기를 느껴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책이다.

사람 못지않게 외롭고 고달픈 야생동물의 삶

《회색곰 왁의 삶》

어니스트 톰슨 시튼 지음/장석봉 옮김/지호/302쪽/값 13,000원



동물관련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곰이나 뱀, 늑대 같은 야생동물들이 아이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동물학자이며 동물문학자인 어니스트 톰슨 시튼의 책에는 친근함보다는 외경심이 드는 동물들이 등장한다. 사람 못지않게 고뇌하며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의 이야기가 깊게 펼쳐진 이 책에는 동물문학자에 머물지 않고 급진적인 환경보호주의자로서 사회운동을 펼친 시튼의 자연친화적인 시선들이 보이기도 한다.

표제작인 〈회색곰 왁의 삶〉은 어미곰과 형제 셋을 한꺼번에 총탄에 잃고 험한 산 속에 홀로 남은 아기곰 왁의 삶을 성장소설 형식으로 보여준다. ‘숲에서 만난 짐승들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배운 후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삼키며 외롭게 자라는 왁. 무서운 삶의 늪을 헤쳐 나왔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왁의 불안과 절망 속에 인간의 고달픈 삶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모진 일들을 겪어가며 도달한 길의 끝자락에서 ‘그 옛날 그레이블에서 어미 곰의 품에 안겨 잠들던 때처럼’ 평온하게 누운 왁의 모습이 ‘야생의 삶’이 갖는 고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통과 절망, 위안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의 이야기가 한 편의 ‘자서전’ 처럼 소개되었다. **한수**

김청연 기자

백화현 · 관악중학교 교사

6월입니다. 나무마다 초록을 마음껏 뿜어대는 계절, 1년 중 생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지요. 하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 속 6월은 어떤 빛깔일까요? 형이 아우에게, 아우가 형에게 총부리를 겨눠야만 했던 6·25전쟁. 그것은 아직도 진행중인 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민족분단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3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을 함께 엮어 읽으며, 분단으로 인한 우리의 갈등과 아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노력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읽고 토론까지 해본다면 더욱 좋겠지요.

《DMZ》 박상연 지음/민음사/260쪽/값 6,000원



이 책은 3년 전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소설입니다. 영화만큼 재미있지는 않지만, 인물들의 갈등과 아픔이 훨씬 더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더욱 저릿하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왜 김수혁은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따랐던 북한군 정우진과 오경필에게 총질을 해대야만 했을까? 어쩌다 그토록 패기만만했던 '나'의 아버지는 꿈쩍이도 사랑했던 동생에게 칼을 휘두르고 평생을 폐인으로 살아야 했을까? 왜 중립국 감독위 사건 조사위원이었던 '나'는 김수혁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후에도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일까? 남한과 북한은 언제까지 서로에게 적이어야 할까? 영화감상과 함께 책을 읽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을 더욱 깊고 넓게 키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운 매화향기》 장주식 지음/김병하 그림/한겨레신문사/212쪽/값 6,500원



이 책은 매향리 문제를 다룬 소설입니다. 매향리는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에 있는 마을이지요. 이곳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매화향기가 진동하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직후 이곳에 주한미군의 비행사격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릴 뿐 아니라, 오폭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과 상실, 그리고 저항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요. 하지만 글씨도 큰 데다 사건 전개도 흥미진진하고 용어들도 쉬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주한미군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상처 입은 세기의 거장 윤이상》 최지숙 지음/교학사/268쪽/값 8,000원



일제 강점기와 어두웠던 우리의 현대사를 헤쳐 오면서도 음악과 조국에 대한 열정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는 분.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이 또 하나의 조국을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동서양을 아우른 최고의 곡이라며 세계가 감탄한 자신의 곡을 정작 조국에서는 연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결코 거둔 적이 없었던 분. 바로 현대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님이시지요. 이 책은 바로 그분에 대한 전기입니다. 그는 마흔의 늦은 나이에 독일로 유학하여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을 뚫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신해서 분단된 조국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어 고난의 길을 걸었지요.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글을 읽는 내내 우리를 뜨겁고 숙연케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누구에게라도 권해주고 싶습니다.